

##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의 특징

김 원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김정일선집》 제16권 중보판 312페이지)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 영국소설문학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뿐만 아니라 영국진보적문학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그에 대한 주체적견해를 세우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영국에서 18세기는 봉건전제군주와 신흥부르주아지의 계급적타협으로 이루어진 립헌군주제와 그에 기초한 귀족부르주아사회가 출현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된것으로 하여 근대사회력사발전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기였다.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 이행한 이 시기 영국에서는 정치,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흐름을 타고 문학의 근대적발전이 촉진되였다.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지난 시기에 비하여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폭로비판이 뚜렷하게 강화된것이다.

그것은 우선 이 시기 진보적작가들이 봉건귀족들과 그들의 부패무능하고 기생충적인 생활을 전면에 내놓고 신랄하게 야유조소하는 반면에 평민의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적극 찬양하고있는데서 나타났다.

봉건귀족들의 부패무능과 기생충적인 생활에 대한 비판은 문예부흥시기 인문주의문학은 물론 중세 일부 진보적작품들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낡은 봉건사상과 도덕에 대한 작가들의 비판태도에서는 근

본적인 차이가 있다.

문예부흥시기 진보적작가인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과 《햄릿》에서처럼 작품이 나오던 당시와는 거리가 먼 중세 초기이야기나 혹은 영국의 현실과 유사한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의 이야기 또는 가상적인 나라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주의를 비판하였으며 그밖에 꿈이나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공상적인 방법으로 귀족들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부르주아혁명이 불철저하게나마 수행되고 새로운 사회관계가 수립되고있던 18세기 진보적작가들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봉건을 반대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로 지향하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여 부패무능한 봉건귀족들과 낡은 봉건사회의 무지몽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신랄하게 풍자조소하였다.

조나썬 스위프트의 소설 《갈리버려행기》에 그려진 소인국의 봉건귀족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평민인 갈리버의 한 손바닥우에서 놀아나는 자신을 《제왕중의 제왕》으로, 《전 우주의 기쁨과 공포의 화신》으로 자처하는 졸렬하고 무지한 봉건왕과 그의 변태적인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급급해하는 아첨쟁이봉건귀족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태도는 매우 신랄하다.

새뮤얼 리처드슨은 소설 《파밀라》와 《클라리싸》에서 귀족지주 대 농민출신녀의 정신도덕적대결에서 전자를 패배자로, 후자를 승리자로 그려놓았으며 귀족들이 종당에는 사회의 규탄을 받아 파멸되는것으로 그리였다. 한편 대니얼 디포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귀족을 단 한 명도 작품에 등장시키지 않았으며 주인공인 평민청년의 무인도에서 생활을 통하여 그의 실천능력을 적극 찬양하였다.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적사회관계가 낳는 황금욕과 사기협잡과 같은 온갖 사회악과 봉건귀족들의 부패무능이 주요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그에 대한 폭로비판이 신랄히 진행되고있는데서 표현되었다.

립헌군주제의 수립과 함께 부르쥬아지가 정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산업혁명에로 이행하면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도시는 물론 농촌에도 퍼져나가고있던 18세기 황금욕과 사기협잡과 같은 사회악은 부르쥬아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적병집으로 되었다. 18세기 근대소설문학에서는 지난 시기 진보적문학과는 달리 황금욕과 사기협잡이 주요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진보적작가들의 주요한 비판대상으로 되었다.

소설 《갈리버려행기》의 《말나라려행》에서 작가는 돈을 위해서라면 흰것을 검은것으로, 검은것을 흰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족속들이 틀고앉아있는 영국의 부패하고 허위적인 재판제도를 풍자적으로 폭로비판하고있으며 추악한 냄새를 풍기면서 징그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하고 누런빛갈의 돌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서로 물고 뜯는 야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돈을 위해 온갖 더러운짓도 서슴지 않는 부르쥬아지들을 조소하였다.

헨리 필딩은 소설 《조나썬 와일드》에서 배신과 속임수, 거짓과 사기협잡으로 악명을 떨치던 당시 영국총리 윌폴을 비롯한 부르쥬아정객들을 《도적》으로 규탄하였으며 소설 《조지프 앤드류즈》에서는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겪게 되는 여러가지 모험들을 통하여 황금욕에 들뜬자들이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백주에 강탈하며 온갖 범죄들을 저지르고있던 당시의 부패한 부르쥬아현실이 폭로되고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딩의 다른 소설 《고아 톰 존즈에 대한 이야기》와 리처드

슨의 소설 《클라리싸》, 조지 스몰리트의 소설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을 비롯한 많은 소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인물설정과 인간관계에서 봉건귀족들이 뒤자리로 밀려나고 평민들이 앞자리를 차지하여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어떤 세습적인 특권이나 직위가 아니라 정신도덕적우월성이나 실천능력의 견지에서 인물들사이의 공부정관계가 설정되고있는것이다.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이나 부르쥬아혁명시기 진보적문학에서는 대체로 봉건귀족과 왕족들을 비롯한 특권계급과 계층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18세기 서유럽나라들에서는 봉건제도가 더욱 위기에 처하고 그것을 청산하는것이 일정에 올랐으며 봉건제도를 뒤집어엎는 부르쥬아혁명의 한 고리로서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졌다. 이미 17세기에 부르쥬아혁명을 수행하고 18세기 근대적발전의 길에 남먼저 들어선 영국에서는 형식적이거나 이미 봉건적신분제도가 철폐되었으며 봉건귀족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이러한 사회정치적변화를 반영하여 18세기 근대소설문학에서는 지난 시기와는 달리 봉건귀족들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으며 그들은 새로 등장한 평민출신의 인물들에게 밀려났다.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의 발전을 대표하고있는 소설들인 《로빈슨 크루소》와 《갈리버려행기》, 《클라리싸》의 주인공들인 크루소와 갈리버, 클라리싸는 다 평민출신의 인물들이다. 소설 《파밀라》와 《조지프 앤드류즈》의 주인공들은 지어 하층출신의 하녀 그리고 하인이다.

사회현실의 새로운 변화는 인간관계에

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오래동안 봉건사회의 질곡으로 되어온 허황한 종교와 봉건사회의 신분적특권은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지배력을 더는 가질수 없게 되었으며 주로 평민출신인물들의 정신도덕적우월성과 실천능력에 따라 인간관계는 공부정도로 갈라졌다.

무인도에서 로빈슨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생활을 통하여 주인공이 로동생활에서 발휘하는 완강성과 근면성 그리고 실천능력은 봉건귀족들의 부패와 무능에 대조를 이루는 정신도덕적특질로서 주인공을 긍정인물로 되게 하고있다.

소설 《파밀라》의 경우에도 고용주인 귀족 B와 고용자인 파밀라사이의 관계에서 주인공이 비록 농민출신의 하녀에 불과하지만 귀족과의 대결에서 정신도덕적우월성과 풍부한 감정을 체현한것으로 하여 언제나 긍정인물로 형상되고 귀족은 도덕적부패성으로 하여 부정인물의 위치에 놓인다.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형상창조에서 근대적면모가 뚜렷해진것이다.

영국에서 소설이 일정한 체모를 갖추고 문학분야에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중세말기 및 문예부흥시기였다. 이 시기 소설은 설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관한 이야기 줄거리도 없었으며 묘사는 매우 유치하였다. 예술적형상은 환상적이며 묘사가 빈약하고 그의 문체적특성은 살아나지 않았다. 소설문학이 중세기 낡은 틀에서 벗어나 근대적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것은 바로 18세기부터였다.

18세기 소설문학의 근대적면모는 우선 인물들의 운명과 사건이 사회력사적환경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고있는데서 표현되었다.

소설들인 《로빈슨 크루소》와 《갈리버 여행기》, 《파밀라》, 《클라리싸》, 《조

나썸 와일드》, 《조지프 앤드류즈》, 《고아 톰 존즈에 대한 이야기》,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 등에서는 현실생활이 환상적이며 신비적인 방법이나 꿈과 같은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현실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있으며 인물들의 운명은 사건발전의 생활적론리에 맞게 처리되고있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주인공의 긍정적특질을 이루고있는 완강성과 근면성을 수십년간에 걸치는 그의 로동생활의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려보여주고있으며 실천능력도 음식을 담아먹을 토기그릇을 만들고 짐승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입으며 나무를 찍어 다듬어서 배를 만드는 구체적인 생활묘사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신도덕적특질은 다그 어떤 신비한 존재에 의하여 천성적으로 주어진것이 아니라 무인도에서 혼자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주인공의 생활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현실적인것으로 그리고 불리한 주위생활환경을 타개해나가려고 애쓰는 주인공의 로동생활속에서 발현되고있다.

18세기 소설문학의 근대적면모는 또한 묘사수단과 수법들이 발전하고 소설양식이 다양해진데서도 표현되었다.

중세기 소설들이 설화에만 의존하였다면 근대소설들에서는 설화와 함께 생활환경과 인물들의 활동, 심리 등의 묘사를 통하여 생동성과 진실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시기 소설들은 문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중세기의 운문소설의 문체적틀에서 벗어나고 어려운 고사를 쓰지 않으며 구두어에 훨씬 접근하였다.

18세기 소설문학의 근대적면모는 다양한 소설양식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시기 소설은 장편형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중편형식이 배합되고 내용에 따라 가정세태소설, 사회소설, 모험소

설, 풍자소설, 철학소설, 환상소설 그리고 문체상특징에 따라 려행기소설, 서한체소설, 1인칭소설 등으로 구분해볼수 있다.

18세기 소설문학은 근대적발전으로 큰 걸음을 내짚었지만 아직 많은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리성의 왕국》을 건설하면 특전과 특권을 낳는 봉건적 신분제도가 청산되고 《자유》와 《평등》,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정의》의 기준으로 간주되던 《리성》은 추상적인것으로서 개인주의에 기초한 귀족부르조아사회의 반동적본질을 사회계급적으로 까밝힐수 없었다.

이로부터 이 시기 근대소설문학에서는 우선 봉건귀족들의 특권과 부패무능, 기생층적생활에 대한 비판과 황금에 대한 숭배, 그것이 낳는 사회악에 대한 비판이 초계급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르조아지들을 동정하거나 찬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근대소설들이 떠들던 《리성의 왕국》은 다가오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18세기 근대소설들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지배적인것으로 되여가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고질적인 병집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회현실에 대한 감상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18세기 말엽에 가서는 그것이 랑만주의적경향으로 바뀌여지고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경향이 약화되었다.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은 예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관계의 설정과 갈등 그리고 사건조직 등에서 작가의 주관주의적견해를 앞세우면서 예술적형상성을 소홀히하는 결함을 나타내었다. 그외에도 형상의 진실성이 확고히 보장되지 못하고 문학적이야기의 꾸밈이 인위적인것과 같은 여러가지 부족점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있었다.

18세기 영국근대소설문학은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새로운 주제와 인물형상을 창조하고 현실포괄범위와 묘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묘사수단과 수법을 발전풍부화한것으로 하여 영국에서 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었다.